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이 오묘하셔서 시간을 두 번 안 주셨어요. 한 번, 우리가 2024년 기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소홀한 부분도 있다. 이래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점검해라 시험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마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사람은 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은 지혜롭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는 다 계산할 날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계산할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 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루만 다 잘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루 은혜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가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뒤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잘 가르치고 말은 잘 하는데, 지키지는 잘 못 지켜가지고 잘 안 믿고 지켜서 오히려 너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을 전하기만 하지 말고 가르치지만 하지 말고 부모가 된 자는 자식에게 교우만 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26~27절,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너무 은혜가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죠. 정말 수준이 다른데 그런 바울도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전해 보이는 바울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허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다른 말로는 자기를 늘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가졌다. 매일매일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루도 매일 돌아봐야 되는데, 한 달 1년 가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이 해를 넘긴다면 이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뭘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

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으며 이 반석은 곳 **그리스도시라**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힘들다고 벽돌 굽는 거 좀 감하게 해달라니까 저놈들 배부르구나. 쪼도 안 주면서 더 구워라. 그대로 구워라. 그다음 이제 쪼까지 주우려 다니고 그러려니까 더 힘들어. 목표한 양이 안 되면 채찍을 때린 거야. 덩어리에 종 때리는 거야. 죄의식도 안 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은 지라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이 힘들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라.** 바로 왕부터 서민까지 짐승 새끼까지 첫 새끼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밤새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하나도 장자가 안 죽었는데 왕부터 온 애굽에 곡성이 진동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에서도 아들 죽었다고 울고 우리도 울고 옆집에도 울고 그래서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라. 나가라. 너희 하나님 뜻대로 나가라해요 그러니 그냥 못 나간다. 우리 재산 다 가지고 나가겠다. 다 가지고 나가라. 이 피는 누구 피를 위해요? 예수님이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작전 잘 세우고 군사 훈련 잘하고 양식 많고 이래서 이긴 거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해방 받았어요. 흥해, 육지 같이 가르고 먹을 것 없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한 마디로 이걸 은혜 많이 받았다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같이 환경이 바뀌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본문 5~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본보기가 되어서 악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좀 받을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너무 오래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래서 모세가 안 온다. 모세 안 온다. 우리는 어찌고 원망 불평하고 아론에 가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어찌고

어찌고 하니까 아론이 겁을 덜컥 먹었어요. 겁을 덜 먹고 야 귀고리 금귀고리 금 다 가져오너라.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번쩍 번쩍번쩍하게 예쁘니까 딱 해놓고 그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번제를 드리자 하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는다고 먹고 춤추고 좋아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은 화를 냈어요. 모세가 내려와 그 모습을 보며 십계명을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최고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거 조금이라도 원망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오늘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것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겨.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길이 있다면 또 피할 길도 주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먹고 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거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나는 편안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인지 아세요? 그런데 다 겁나서 저게 무너지겠나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 겁니다.

**본문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아멘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싯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 지내는 게 뭐냐? 거기 가서 막 성적 행위를 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 막 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보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그 제사 지낸다는데 다 간음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수령들을 전부 다 죽여라. 보니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가지고 자기 천막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비느하스가 천막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 버렸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왜 죽이라고 그러느냐 가만히 놔두면 아니 뭐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무서운 벌을 내리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멘 육신적인 것도 간음이고 우상이 뭐가 우상이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아니고 다른 거 만들어. 교회는 다니고 몸은 교회와 있는데 마음은 항상 딴 데 가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민수기 21:4~5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아이고 맨날 만나만 주고 이런 거 맨날 먹어라 하고

이런 얘기에요. 이게 왜 원망하고 이런 게 시험이나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할 때 하나님 은혜로 나왔잖아요. 홍해를 육지까지 갈랐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셨는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또 죽이려고 그러다 하니까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고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뱀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물리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너 무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뿔으로 불뱀 만들어 높이 들어라. 이것을 보는 사람 살리라'...봤더니 다 살았고 '아이고 모세 또 허튼짓 한다. 저걸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본문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가면 좋을 건데 여기서 왜 죽이느냐 광야에 죽이느냐' 어려울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잡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 없어 믿지 않고 승리한 사람 없어 구원도 믿음으로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승리도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 이길 자가 누구냐 혹시 1년 동안 원망 불평하고 시험하고 불신앙하고 했던 거 24년도 내려놓고 25년부터는 아멘 믿습니다. 어려워도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도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걸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만 바라봐요. 간절히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시험하거나 우상숭배하지 말고 정말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